

제101회

7월 11일

- ... 본회가 주최한 제101회 ...
- ... 회 발명교실이 지난 ...
- ... 7월 11일 발명장려관 ...
- ... 연구실에서 개최됐다. ...
- ... 매월 둘째 토요일 오 ...
- ... 후 1시 30분에 개최 ...
- ... 되는 발명교실은 이 ...
- ... 달에도 1백여 명이 ...
- ... 참석하여 성황을 이 ...
- ... 루었다. 이날 발명교 ...
- ... 실에서는 금도레저 ...



텐보트 발명가

금도레저 金萬洙 사장

세계 최초로 텐보트를 발명하여 화제를 불러일으킨 金萬洙사장. 76년 순천대학 축산학과를 마친뒤 상경, 등산장비를 만드는 작은 회사에 입사하면서 레저용품과 첫 인연을 맺었다. 그후 10년간의 연구끝에 텐보트를 발명, 지금의 금도레저를 설립했다.

현재 金사장은 세계 50여 국가와 수출 및 상담을 하고 있으며, 3~4 인용, 7~8인용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텐트와 보트의 기능을 함께 갖춘, 일명 텐보트를 발명한 金사장은 가난한 생활 가운데

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진 젊은이였다.

축산업을 전공한 그는 서울에서 마땅히 일할 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고 신념이 있으면 무슨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적극적인 그의 사고방식으로 인해 스포트회사의 판매담당 부장으로 취직할 수 있게 되었다.

텐보트를 발명하게된 계기도 바로 그곳에서였다. 그는 텐보트의 발명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스포츠분야에 근무하면서 스포츠용품에 대해 남다른 관심이 있었죠. 그러던 중 등산,

낚시, 해수욕 등을 떠날때마다 서로 다른 용품을 챙겨야하는 불편함을 깨닫게 되었고, 산과 해수욕장에서는 텐트로, 강이나 바다에서 낚시 등을 할 때는 보트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레저용구를 집약 겸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텐보트를 연구하면서 겪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공기압의 팽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공기압자동조절기의 개발이었다. 이것은 공기의 특성상 공기가 열을 받아 뜨거워지면 공기속의 질소가 팽창, 공기튜브가 터져버리

發明教室

成功事例 등 發表

- ... 김만수 사장의 성공 ...○
- ... 사례 발표에 이어 金 ...○
- ... 寬衡 본회 상근 이사 ...○
- ... 의 「발명의 창출과 ...○
- ... 사업」에 대한 강의와 ...○
- ... 黃宗煥 변리사의 「산 ...○
- ... 업재산권제도」에 대 ...○
- ... 한 강의와 토론이 있 ...○
- ... 었다. 발명가의 성공 ...○
- ... 사례를 간추려 소개 ...○
- ... 한다. <季斗星記> ...○



기 때문이었다. 그는 어려움이 닥칠수록 강해져만가는 신념이 있었다. 텐트의 완성과 특허권을 취득할때까지는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후 다시 발명에 전념했다.

그래서 연구를 거듭한 끝에 온도차에 따른 팽창성질을 과학적으로 입증, 분석, 팽창으로 인한 팽크와 수축작용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외 안전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완성시켰다. 이과정 속에서 그는 10여건의 특허권을 함께 취득하여 생산, 판매를 독점했다. 金사장이 발명한 이 텐보트는 이름처럼 텐트와 보트의 역할을 한다. 또한 텐보트 바닥에 까는 매트리스로 날개로 분리되는 9개의 공기관으로 제작되어 어느 한곳이 팽크가 나더라도 나머지만으로 매트리스의 기능을 훌륭하게 해내며, 색상과 디자인 등이 수려

하여 침대로도 사용할수 있게 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텐트와 매트리스 자체가 공기튜브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구명보트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않고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위해 신소재를 이용한 공기튜브관을 제작중인데 현재는 연필심으로 찢러도 터지지않는 튜브관을 만들수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텐보트는 대만이나 일본등에서도 발명을 시도했으나, 공기팽창과 수축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해 실패했고 현재는 金사장이 발명한 텐보트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작에 성공하여 정상에 우뚝선 경우이다.

「연구를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을때 항상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받으십시오.」

텐보트 발명시 애로사항이

있을때마다 그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받곤했다는 金사장은 그분들의 은혜 또한 잊지 않는 의리의 사나이이기도 하다.

공기에 대한 연구를 오래한 그는 공기 다루는 기술분야에서 의뢰를 요청해 올만큼 전문가가 되어 지난 '88서울올림픽에서는 공기 다루는 기술에 관해 자문을 받기도 했다. 「모든 일은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실천하면 꼭 성공하게 돼있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텐보트의 발명으로 기반을 닦은 金사장은 공기의 수축과 팽창을 이용한 마네킹도 개발,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앞으로의 꿈은 공기로 달리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힘있게 말하였다.<♣>